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대안: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장도곤 (동원대학 교수/기독교윤리학)

- I. 들어가는 말: 무성생식 시대와 수정란의 지위
- II. 전통과 생명과학: 충격, 거부, 정립
- III. 인간의 시작에 대한 주요 견해
 - 1. 과학적, 철학적 접근
 - 2. 신학적 전통과 새로운 성경해석
 - 3. 양 극단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 IV. 불확실성 시대에 제시되는 윤리적 대안
- 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41-A00233)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challenge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about the essence of life and human beings. For an example, the new technologies like external fertilization and somatic cell nuclear transplant have brought a new reality, 'the artificially fertilized eggs outside of the uterus', which was not even imaginable in the past. The implantation process is not an automatic and continual process of human genetics anymore. Accordingly, the modern people have faced a new fact that the unchosen fertilized eggs, which do not have an opportunity of being inserted into the uterus, cannot generate a human being.

In recent times, the pro and con dispute regarding embryonic stem research is hotly going on. The group seeing the fertilized eggs as human beings is asserting the absolute ban of the embryonic stem research, and the group seeing them as the mere lump of cells is insisting the full support of it. It is the right time to examine the traditional dogmas in relation to the view of life so that theology may not turn into dogmatism being cut off from science. At the same time, it is urgently needed that theology present a proper direction in order to prevent humanistic mistakes and warn falsifications out of scientis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 Christian ethical alternative, which is concrete and applicable in reality, in relation to the embryonic stem research. For that purpose, I attempted to take an approach designating the beginning point of a human being scientifically and theologically. However, such an approach is end up with the realization that a clear answer incurring no existential refutation cannot be given. As a compromise, I suggest an ethical alternative, which respects the life and personality of embryos fully, and at the same time which enables the use of them for the research. My realistic alternative is that the research using the remaining embryos can be allowed on the condition of enforcing strict regulation. I expect that this research exposes the meaninglessness of the unconditional pro and con regarding high-tech life science, and furthermore that it becomes a clue to establish Christian truth embracing science.

Keywords: dogmatism, scientism, stem cell, remaining embryos, ethical alternative

I. 시작하는 말: 무성생식 시대와 수정란의 지위

생명과학의 발달 이래 체외수정, 체세포핵이식 등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궁 밖에서 인공적으로 형성되는 수정란’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등장하게 했다. 과거에는 모든 수정란은 자궁 안에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수정란 형성이 후의 인간발생 과정은 자연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시대에는 자궁에 착상되는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착상이라는 과정은 더 이상 인간발생의 자동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이 되지 못한다. 현대인은 선택 받지 못하여 ‘자궁에 삽입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정란’은 인간으로 발생될 수 없다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명과학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이론들은 지난 시대의 자연과학의 전제조건들을 의문 안에 몰아넣고 있다.”¹⁾

이러한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 수정란의 인간적 지위에 대한 전통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식의학의 맥락에서는 자궁 내의 배아와 시험관 내(in vitro)의 배아의 도덕적 지위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²⁾ 이에 따라 수정란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입장과 단순한 생명세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여 논쟁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인간배아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중간적 입장도 그 세력을 더하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인간배아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가 현재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있는 환자들의

1) 김균진, 신준호,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3면.

2) 박재현, 신민선,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0집(2005), 12면.

생명의 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³⁾ 생명과학의 발전은 신비로 여겨졌던 복잡한 생명 발생과정을 밝혀내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생명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독교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 논문은 먼저 기독교 전통과 새로운 과학이 갈등하고 대립했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다. “어떤 과정을 거쳐 신학과 과학의 갈등이 해결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논의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논쟁을 신학적으로 해결하는 건전한 자세를 인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첨단생명과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가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진지한 신학적 연구를 정진할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을 기대한다. 계속하여 이 논문은 ‘수정설’과 ‘수정후 14일설’을 중심으로 과학적,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인간의 시작점’을 찾는 존재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논의를 기초로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란의 지위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이며 적용 가능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전통과 생명과학: 충격, 거부, 정립

새로운 과학이 우주와 그 운행원리를 인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에 도전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종 발생된다. 이 경우 전통적인 교리를 수호하려는 그룹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려는 그룹 사이에서는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발견과

3) 같은 글.

주장이 어떤 경우는 과학절대주의적인 오류로 판명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통적인 신학을 수정하거나 재정립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과학 이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님이 드러나며 현재까지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로는 진화론을 들 수 있고, 교회의 전통적 이해가 수정된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는 지동설을 들 수 있다.⁴⁾ 강희원은 지동설과 관련된 갈등과 논쟁의 무의미성을 다음과 같은 평을 통하여 지적한다. “천동설을 신봉하였던 그 당시 유럽인들은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악을 금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그러나 지동설은 천동설을 극복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인간의 의식만이 변했을 뿐이다.”⁵⁾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이 기독교 전통에 도전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9세기 중엽 출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클로로포름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출산의 고통이란 원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이며 모성을 키우는 자연의 조화이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⁶⁾ 1978년 영국에서 체외수정에 의하여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출생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로마 교황청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근원적인 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험관 아기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

4) 맥그래스는 지동설 논쟁을 단순한 ‘과학과 종교의 대립’으로 보지 않고, 그 배경에는 “법원정책, 개별적 알력, 신교에 대항해 자신을 옹호하려는 가톨릭교회 측의 투쟁, 또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순수한 시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Alister McGrath,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서울: 지와 사랑, 2001), 324면.

5) 강희원, 『생명 대(對) 공학 대(對) 법의 풀리지 않는 3차방정식으로서 “대화적 생명공학 법”』,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서울: 한들출판사, 2001), 203면.

6) 오덕호, 『생명복제에 대한 성서적 고찰』,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서울: 한들출판사, 2001), 10면.

다.7) 김은혜는 당시는 “찬반양론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지금은 반대 의견은 소수가 되었다”고 평가한다.⁸⁾ 우려와는 달리 루이스 브라운은 건 강한 여자로 성장하여, 자연임신을 하였고 2007년 1월 출산예정이다.⁹⁾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유승원은 “전통적 교의의 손상을 두려워하는 종교는 사실 규명에 진실하려는 과학과의 싸움에서 종종 자동반사적인 거부감을 보이다가 결국은 자랑스럽지 못한 기억만을 남기고 패배하고는 했다”고 진술한다.¹⁰⁾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과학 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한 종교의 지나친 거부감이 오히려 종교를 비현실적인 도그마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한다. 이런 조망을 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종교계의 아픈 경험이 작은 목소리나마 생명 공학에 대한 반성적 수용을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한다.¹¹⁾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새로운 과학에 의한 충격으로 그 부작용을 침소봉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진지한 신학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성된 전통적 이해만을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라고 고집하며 새로운 각도의 조망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과 문화에 의해 제기되는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를 거부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는 신학 연구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과학과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교리적 독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무조건적

7) “최초의 시험관 아기 엄마 된다”, 조선일보, 2006년 7월 12일자.

8) 김은혜, 『“한기채 교수의 인간복제, 축복이나 재앙이냐”에 대한 논란』,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생명, 신학, 윤리』(서울: 한들출판사, 2003), 75면.

9) 조선일보, 위의 글.

10) 유승원, 『오덕호 교수의 “생명복제에 대한 성서적 고찰』,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서울: 한들출판사, 2001), 56면.

11) 이진우 외 3명, 『인간 복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독일 슬로터다이크 논쟁을 중심으로』(서울: 문예출판사, 2004), 107면.

인 찬성은 과학주의적 허구라고 본다.

21세기에는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류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과학이 생명과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특히 생명복제의 초기, 종교계는 이 놀랍고 엄청난 과학에 대한 자동 반사적 과민반응을 보이며 지금은 오해로 판명되고 있는 근거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 중의 하나는 생명복제는 하나님의 창조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 노릇하기’라는 것이었다.¹²⁾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생명복제 과정에 대한 차분한 과학적, 신학적 검토는 결국 생명복제가 주어진 세포와 난자를 이용하는 ‘생명조작’에 불과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생명복제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덕호는 “창조질서가 기본질서만을 의미한다면 생명복제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의 질서를 바꾼 것을 다 창조질서의 파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생명복제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창조질서의 파괴라고 하기보다는 그 동기와 결과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따라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우리는 생명복제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생명과학을 포함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탐구와 노력은 창세기 1장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성실한 수행으로 볼 수 있다.¹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과학과 신학의 대립 및 갈등의

12)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102면, 김영선, 「인간복제와 영혼」,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506호(2001년 2월), 116면을 들 수 있다.

13) 오덕호, 위의 글, 39.

14) 이러한 입장을 보려면, Ronald Cole-Turner, *Beyond Cloning: Religion and the Remaking of Humanity*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해결 과정을 냉정히 살펴보면, 과학과 기술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자세가 더 큰 문제인 것을 인지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의 충족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¹⁵⁾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력, 즉 인간의 달란트를 최대한 계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는 한 방법이라는 성경의 교훈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오덕호는 “해로운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로운 것을 계발하지 않는 것은 성서가 꾸짖는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다”라고 진술하며 생명복제의 해로운 점은 피하되, 유익한 점을 살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피력한다.¹⁶⁾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명확한 윤리적인 지침이 선행된 후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생명과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달란트를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성서적인 것이다.

그러나 ‘생명복제 기술을 하나님과 창조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과 ‘무비판적으로 그 기술을 허용하자’는 입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의 오용과 남용을 통해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생명복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이해가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나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윤리적 근거는 될 수 없다.

2001), pp.39-46을 참조하라.

15) 바버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은 종교와 과학과의 갈등이 아니라, “과학이 응용에 대한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 간의 갈등”이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유전자 조작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Ian G. Barbour, *When Science Meets Religion*, 이철우,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서울: 김영사, 2001), 219면.

16) 오덕호, 위의 글, 42.

생명복제에 대한 신학의 또 다른 주요 거부반응은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생명복제 초기에 사람들은 복제된 생물이 원본생물과 생물학적으로 똑 같은 개체라는 오해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더 발전된 과학의 이해를 통하여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인지하게 한다.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생물학적 동일성은 일란성 쌍둥이보다 더 차이가 난다.¹⁷⁾

인간복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지만, 우리가 냉정히 검토해야 할 것은 인간복제를 통해 동일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제 인간과 원본인간은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신적, 영적으로도 다른 존재이다.¹⁸⁾ “복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당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¹⁹⁾ 인간복제가 원본인간과 복제인간 사이의 가족관계 혼란이나 복제인간의 대량생산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인간의 정체성을 침해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생명복제 초기에 우려한 바와는 달리, 인간복제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생산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생명복제 초기에는 복제인간은 영혼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²⁰⁾ 그러나 동물복제의 결과는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동물도 유성

17)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등 현재 과학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요소가 개체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개체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다. 복제된 생물체의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장도곤, 「복제고양이 Cc 탄생의 신학적 의미: 인간의 영혼육의 재조명」,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7집 (2004), 223-65면을 참조하라.

18) Cole-Turner는 “개체는 유전자에 의해 규정되지만, 개체는 유전자 이상의 존재”라고 주장한다. “유전자가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선결조건이며 소인이 되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세부적인 행위와 믿음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Cole-Turner, op. cit., pp.144-45.

19) Gregory E. Pence, *Flesh of My Flesh: The Ethics of Cloning Humans*, 류지한 외,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울력, 2002), 128면.

생식으로 태어난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종의 모든 특성을 소유한 개체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²¹⁾ 오덕호는 “복제인간이 원본인간과 다르다는 것은 복제인간이 독립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한다.²²⁾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형성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자연 임신과 동일하므로 인간의 모든 특성을 갖춘 온전한 인간이 출생될 것이라는 유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성장하여 자연임신을 한 것과 현대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영혼 창발설’은 이런 유추에 힘을 실어준다.²³⁾ 그러므로 복제된 인간도 영혼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이외에도 유성생식만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므로 무성생식은 비성서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주관적 한계를 지적하는 학자는 “남녀 간의 성적결합을 통한 유성생식만이 자손생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근거를 성서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²⁴⁾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과학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반사적

20) 예를 들어 김영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인 복제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한국개혁신학회, 『생명복제와 개혁신앙』(서울: 한들출판사, 2000), 124-25면.

21) 복제양 돌리가 나이보다 6살 많은 세포를 가졌고, 여러 가지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돌리는 하나의 고유한 개체로서 양의 모든 특성을 갖춘 온전한 양으로 봐야 할 것이다.

22) 오덕호, 위의 글, 30면.

23) 예를 들어 김성봉은 부모를 통하여 육체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영혼을 조성한다는 창발설에 힘을 실어준다. 김성봉, <개인 영혼의 기원에 대하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영혼문제와 인간복제』(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7), 75-76면. 창발설을 수용한다면, 무성생식 대리모를 통해 육체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유성생식과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조성할 것이라는 유추를 배제할 이유가 있을까?

24) 장석정, 『강성열 교수의 “구약성서의 생명공학: 다시 읽는 창조 이야기”에 대한 논찬』,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서울: 한들출판사, 2001), 117면.

으로 형성되는 과민반응들은 과거의 전통적 이해만을 진리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김균진과 신준호는 “우주적 현실은 ‘상향식 인과율’(bottom up causality)과 ‘하향식 인과율’(top down causality)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자연과 신학의 전통적 전제들은 상대적이며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²⁵⁾ 전제가 잘 못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새로운 과학에 의해 우주와 사물 인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거부만을 고집한다면, 신학은 현실과 단절된 독단적이며 고립된 영역, 또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형이상학적, 초월적 영역으로 스스로를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에 의한 윤리적 규범의 일방적 강요는 설득력을 잃고 구속력 없는 메아리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생명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근대 윤리학이 다룰 필요가 없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목적으로서 존중하라’는 칸트의 윤리학적 명제는 이미 인간이 누구인지를 전제했다. 그런데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²⁶⁾ 현대 교회는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쟁은 자연히 생명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1세기 말이 되면 인간이라는 개념조차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²⁷⁾ 인간의 시작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성서적이며, 동시

25) 김균진, 신준호, 위의 글, 149면.

26) 이경직, 「기독교 생명윤리학 방법론」,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0집(2005), 38면.

27) Dominique LECOURT, *Humain, Post Humain*, 권순만, 『인간복제논쟁: 인간 복제 이후의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서울: 지식의 풍경, 2005), 72, 82면.

에 과학적 진리에 기초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Ⅲ. 인간의 시작에 대한 주요 견해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 발생의 복잡한 과정이 점점 더 자세히 밝혀짐에 따라 수정란을 인간으로 보는 설이 부인되고, 인간의 시작점을 착상, 14일, 28일, 40일, 5개월 등으로 보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14일설은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와 관련되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정후 14일설’과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오던 ‘수정설’에 대한 집중적 조사를 통하여 인간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1. 과학적, 철학적 접근

과학은 하나의 배아에서 두 개의 원시선이 발생하면 쌍둥이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배아에서 원시선이 발생하는 14일까지는 배아가 하나의 개체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쌍둥이가 될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발생학적인 발견에 기초하여 원시선이 출현하고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수정 후 14일을 인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정란을 단순히 세포 덩어리로 간주한다. 이들은 수정란이 신체 기관으로 분화하기 시작할 때를 인간의 시작점으로 본다. 14일 이전의 세포는 “신체 중 어떤 기관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만능 세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개체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²⁸⁾ 만약 인간의 수정란을 다른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

면, 그 개체가 인간과 근접한 다른 동물로 발생될 수도 있다. 자궁이 “태아가 자라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²⁹⁾ 인간의 수정란이 다른 동물의 자궁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 가까운 개체로 발생된다면, 수정란이 곧 인간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14일 이전의 배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덕호는 “수정란을 인간으로 본다면, 체세포의 핵을 다른 난자에 이식하여 수정란을 형성하는 핵치환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인간은 그 존엄성 때문에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것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기본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입장이 수정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란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들은 14일설이 “배아나 태아의 계급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피터슨(Peterson)은 “착상(6-9 일), 개체화(14일) 또는 형상화(28일)에 근거해 사람됨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과정에 계급적인 특성이 있어서 인간이 일정한 기능을 습득함에 따라 점점 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기술한다. 즉 “위에 묘사된 경계는 각각 시작점으로 제시”될 뿐이라는 것이다.³⁰⁾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정란에 인간의 윤리적 지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개체화전 또는 착상전의 배아는 아직 태아가 가진 하나의 완전한 성체로서의 윤리적인 입장을 가지지 못 한다”고 주장한다.³¹⁾ 이들의 견해대로 14일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배아를 원하는

28)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서울: 가치창조, 2001), 68면.

29) 오덕호, 위의 글, 18면.

30) James C. Peterson, "Is a Human Embryo a Human Being?" in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s.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84.

31) Gene Outka, "The Ethics of Human Stem Cell Research," in *God and the Embryo:*

만큼 추출하고, 복제하고, 냉동 저장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살인행위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아직 인간이 아닌 14일 이전의 배이를 사용하여 줄기세포 연구를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정란을 인간의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수정란이 인간임을 부인하는 모든 다른 입장을 거부한다. 이들은 “일단 임신이 되면 각 존재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시적인 인간생명”이라고 주장한다.³²⁾ 그 이유는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가 합쳐진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정이 되면 정자의 염색체 23개와 난자의 염색체 23개[가] 합쳐져 전혀 다른 46개의 염색체를 소유한 새롭고 독특한 존재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³³⁾ 모든 수정란은 46개의 염색체를 소유했으므로 인간으로 발생하는데 필요한 모든 유전정보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이해이다.

이들은 모든 수정란은 인간 생명의 가능태이며, 모든 인간 배이는 “여전히 미숙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갖춰진, 다른 존재와 같지 않은 인간 존재”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정란으로부터 배아, 태아, 인간으로 발생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단절이 없고 연속되는 과정이므로 “적절한 환경을 박탈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수정란은 당연히 인간이 된다고 주장한다.³⁴⁾ 이는 생명의 연속성과 잠재성을 인간의 시작점을 판단하는 근거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란이 유성생식에 의해 만들어졌든, 아니면 무성생식에 의해 만들어졌든 관계없이 모든 수정란은 인간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존재를 살해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라는 생명우선의 입장을 고수한다.³⁵⁾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s.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54.

32) Ibid.. p.55.

33) 박재현, 신민선, 위의 글, 24.

34) 같은 글.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며, 생명체인 수정란을 곧 인간으로 보는 이들이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 주장의 근거를 연속성과 잠재성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그 시기만이 다를 뿐이다.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속성의 시작점을 개체화가 시작되는 14일로 본다. 피터슨은 14일설에 의거하여 수정 시에 인간에게 영혼이 부여된다는 이론을 거부한다. 수정 시부터 배아 하나에 영혼 하나가 부여된다면,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고 유산되는 수많은 수정란은 “하나님의 인간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⁷⁾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 설계를 잘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란은 인간이 아니고 봐야한다는 논리이다. 체외수정 기술과 체세포핵이식 기술의 발달 이후 자궁 밖에서 형성되어, 자궁에 착상되지 않고, 자궁 밖에 존재하는 수정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수정설의 생명의 연속성의 개념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개체화 때에 영혼이 부여된다고 보는 학자들은 수정란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인간이 시작되느냐에 의미를 둔다.

35) Robert Song, "To Be Willing to Kill What for All One Knows Is a Person Is to be Willing to Kill a Person," in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s.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102.

36) 수정란과 배아의 연속성, 잠재성과 관련된 자세한 과학적, 철학적 논의는 장도곤,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와 윤리적 대안」,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38권(2005), 332-37면을 참조하라.

37)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은 수정 시에 영혼이 부여된다는 ‘동시획득설’과 형성되지 않은 육체에 영혼이 깃들 수 없다는 ‘지연획득설’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동시획득설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빛을 보게 되었고, 요한 바오르 2세가 공식화함으로써 승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미니크 르쿠르, 위의 글, 116면을 참조하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속성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수정설이나 14일설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른 점은 ‘생명을 가진 수정란을 연속성의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체화가 시작되는 14일된 배이를 연속성의 시작으로 보느냐’는 것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터슨은 “우리도 과거에는 배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배아도 인간”이라는 논리가 논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인간생명의 발달에는 그러한 단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은 그러한 발달과정 중 언제 존재가 있는 사람(a person present)이 되는가?”라고 기술하며 반론을 전개한다.³⁸⁾

피터슨이 14일설을 주장하는 다른 근거는 배아의 잠재성의 거부이다. 가능성과 실존을 엄격히 구별하는 그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존재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피력한다.³⁹⁾ 14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진 수정란과 실제로 인간이 되기 시작한 14일 이후의 배이를 분명히 구분한다. 피터슨은 “잠재성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잠재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이 가진 잠재성을 이룬 존재가 될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수정란을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거부한다.⁴⁰⁾

14일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위와 같이 잠재성의 불연속적 가능성과 ‘잠재적 존재’와 ‘잠재성을 이룬 존재’의 상이성에 기초하여 수정란을 인간으로 간주하는 논리의 부당성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정란의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부인하면, 동일한 맥락에서 14일설도 부인될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시작점을 14일설보다 뒤

38) Peterson, op. cit., p.83.

39) Loc. cit.

40) Loc. cit.

로 잡는 사람들은 14일된 배아를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산을 인간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람에게 14일된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배아나 태아의 잠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궁 안에서 전개되는 모든 발달 과정의 배아나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출산 후 모태 밖으로 나와 하나의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한 인간으로 인정될 것이다. 더 심한 경우 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아의식을 가지고 행위판단이 가능한 존재만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비인격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위하지 못하는 배아나 태아보다 스스로 행위하는 하등동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낙태나 유아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다.⁴¹⁾ 배아나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수정설과 14일설을 주장하는 양측이 모두 나름대로의 과학적,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논의를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2. 신학적 전통과 새로운 성경해석

몇 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독교의 전통은 초기 교부시대부터 시작하여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수정란은 곧 인간이다’라는 입장을 수용했다고 본다.⁴²⁾ 그러나 이와 다른 입장이 간헐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자는 40일, 여자는 90일부터 인간으로 간

41) Peter Singers, *Practical Ethics*, 2nd e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169-71.

42)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eds,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p.191-94.

주된다는 특이한 기준을 제시했다.⁴³⁾ 이러한 전통은 17세기 로마 가톨릭의 진보적인 사상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20세기 후반이후, 개신교와 가톨릭의 진보적인 그룹은 새로운 과학에 의거하여 수정란이 인간임을 부인하며 태아의 발생정도에 따라 ‘신분과 보호의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다.⁴⁴⁾ 이와는 별개로 정통 유대교인들은 수정 후 40일부터를 인간생명으로 본다. “40일 전의 존재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다른 세포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아직 동질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들 유대교인들의 이해이다.⁴⁵⁾

인간의 시작점이 수정란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로는 이사야 44:2, 시편 139:13, 예레미야 1:5, 에베소 1:4 등을 들 수 있다. 근대이후 기독교의 주류는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섭리가 모태로부터 역사하므로 수정란이 생명을 가진 인간임을 주장해왔다. 이승구는 이런 구절을 기초로 “수정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또한 “우리가 수태되어 생물학적 생명을 부여받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관념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더불어 이런 구절을 “그저 모든 생명의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계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단언한다.⁴⁶⁾ 따라서 이들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히 여기며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이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단순히 본문 들이대기 (proof-texting)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⁴⁷⁾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섭리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수정되는 순간부

43) Aquinas, *Commentary on the Sentences* book IV, d. 31 exp. text. Waters and Cole-Turner eds., p.80, 191에서 재인용.

44) Waters and Cole-Turner eds, op. cit., pp.191-94.

45) Ibid., pp.79-80.

46) 이승구,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5면.

47) Outka, op. cit., p.43.

터 배아가 생명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됨을 의미한다.

이와는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의 기본입장은 성서에는 인간의 시작에 대한 정확한 문자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시작을 규정짓는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구절들이 “수정란, 배아, 태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런 구절들을 기초로 “성서가 태속의 존재 중 수정란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배아나 태아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⁴⁸⁾ 예를 들면, 이들은 시편 139:13이 언제 인간이 시작됨을 가르쳐주는 구절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구절은 모태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언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가 될 존재의 신체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언제 그 신체가 발달하여 시편기자가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⁴⁹⁾ 즉 하나님이 모태 안에서 신체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이 수정란이 인간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인간의 시작이 수정란부터라고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예레미야 1:5, 에베소서 1:4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⁵⁰⁾ 이런 해석을 기초로 피터슨은 “배아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만, 성서에는 배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없다”고 주장한다.⁵¹⁾ 보수 또는 진보라는 입장에 따라 동일한 성경구절로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이끌어 내며, 한 그룹은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그룹은 이를 찬성하고 있다.

48) 오덕호, 위의 글, 19면.

49) Peterson, op. cit., p.79.

50)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석은 *ibid.*, pp.79-80 또는 장도곤,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와 윤리적 대안>, 339-40을 참조하라.

51) Peterson, op. cit., p.79.

3. 양 극단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은 갈등만 심화시킬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문자주의와 과학주의의 대립은 해결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소모전만을 계속하게 만들 것이다.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은 새로운 과학과 문화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표출하면서 처음부터 과학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현대인들이 직면하여 고민해야 하는 대다수의 이슈들이 신약성서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문자주의는 스스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⁵²⁾ 결국 문자주의는 시대를 따라 인간 사회에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교회를 세상에서 고립시키게 된다. 김균진과 신준호는 이러한 문자주의를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이러한 믿음은 성서와 교회가 가르치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오히려 형이상학적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 …… 문자주의적 성서 이해의 배후에는 결정론이라는 형이상학적 신념이 무비판적 공리로서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때 신학은 성서적 언어들이 지시하는 본래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며, 그 언어들이 지시하는 현실이 자연과학이 현재 취급하는 현실과 동일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신학은 자연과학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⁵³⁾

계속하여 김균진과 신준호는 “신학은 시대적 추세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기독교 교리와 성서해석들을 자연과학적 개념들과 연관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신앙적 삶과 문화적 삶 사이의 개념적 연결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⁴⁾ 문자주의는 생명복제와

52) 유승원, 위의 글, 48면.

53) 김균진, 신준호, 위의 글, 153면.

관련하여 과학과 신학을 연결하는 진지한 성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과학주의는 정신과 종교의 초월적 영역을 무시하고 물질주의적,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환원주의는 부분을 분석하여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 즉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고, 그 조각난 각각의 부분들을 분석한 후 전체를 재구성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한다.”⁵⁵⁾ 그러나 복잡한 우주와 만물의 질서의 각 부분을 분석하는 접근을 통하여 그 합인 전체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분자생물학은 인간 구성의 최소 단위를 분석하는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작용의 본질을 뇌세포와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며 정신을 물질적인 영역으로 국한하여, 인간 영혼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 초월적 영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자세는 믿음과 영혼을 다루는 종교의 본질을 거부하게 된다. 과학이 물리적 영역을 초월하는 초과학적 영역을 인정할 때 폐쇄적인 과학절대주의를 벗어나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은 연구결과 자체가 갖는 한계성과 윤리적 책임의 문제 앞에서 종교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신학도 역시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학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전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⁵⁶⁾ 과학과 신학이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독특한 영역을 인정할 때, 상호대화에 기초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21세기의 인류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배아의 지위에 대한 존재론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

54) 앞의 글, 154면.

55) 앞의 글, 150면.

56) 앞의 글, 16면.

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시작을 정의하는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몰트만은 “삶이 더 이상 살아남음(Uberleben)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용되며, 사랑받으며, 체험되는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체험될 수 없는 생명은 더 이상 인간적 가치를 가진 생명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모와 사회를 통한 생명의 수용이 절박한 문제로 등장한다”고 답변한다.⁵⁷⁾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지만, 이러한 몰트만의 입장에서 분명히 보이는 전제는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을 구별하는 것이며, 생명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생명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존재론적인 접근의 결과를 정리하면, 배아의 인격지위에 대해 과학적, 철학적, 신학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답변은 아직 제시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된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영향으로 이와 관련된 이해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아의 지위와 관련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위의 어떠한 입장도 배아가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지를 결정해주지 못 한다는 것이다. “배아 연구를 지지하는 존재론적인 주장은 정당한 의심을 풀어줄 만큼 배아가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배아 연구를 거부하는 존재론적인 주장은 배아를 위한 윤리관이 타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⁵⁸⁾ 따라서 필자는 ‘배아가 언제부터 인간인가?’하는 존재론적인 접근을 일단 보류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배아의 생명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가능케 하는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57) Jürgen Moltmann, *Wissenschaft und Weisheit: Zum Gespräch zwischen Naturwissenschaft und Theologie*, 김균진,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22-23면.

58) Song, op. cit., p.105.

IV. 불확실성 시대에 제시되는 윤리적 대안

배아의 지위에 대한 존재론적 결론이 모호한 상태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윤리적 대안은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연구는 엄격한 관리와 규제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⁹⁾ 필자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잔여배아가 생명이며, 인간이라는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다. 또한 시험관 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잔여배아가 생산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무방함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잔여배아는 이용가능하다’는 제안은 윤리학적 문제를 내포한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선책으로 제기되는 잠정적 절충안이기 때문에 성서적 타당성을 근거로 당위(ought-to)를 제시되어야 하는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접근을 간과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배아의 인간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현재, 배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⁶⁰⁾

더불어 복제배아와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도덕성을 비교하

59) 진교훈은 여분의 배아를 만드는 체외수정의 과정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간 배아의 창출, 이용, 폐기, 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한국의 방임 상태를 지적하며, ‘잔여 냉동 배아를 사용하자’는 공리적인 주장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강력히 선언한다. 진교훈,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 성찰>,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서울: 한들출판사, 2001), 258-60면.

60) 이종원은 “잉여배아나 냉동배아로부터 줄기세포(stem cell)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유혹이 크며 윤리적 판단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기술하며 배아복제의 금지를 주장한다. 장래에 과학이 더 발전하면 성체 줄기세포의 배양이 일반화될 수도 있고, 다른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잔여배아를 버리는 것보다는 연구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종원, <배아복제의 찬반논변에 관한 윤리학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9집(2005), 219면.

는 학자들의 입장이 현저하게 다른 현재 배아의 지위와 관련된 이해가 얼마나 혼돈의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련의 학자들은 “체세포핵이식은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와는 달리 오로지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만 인간 배아를 만들고 파괴하기 때문에 의도 면에서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체세포핵이식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 의해 만들어지는 배아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조직 배양과 같은 것으로 인간 생명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인공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⁶¹⁾ 이러한 혼란의 상태에서 필자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술의 성공을 위해 실제 소요량보다 더 많은 잔여배아를 형성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보류하려 한다. 그러나 ‘이미 생산된 잔여배아를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입장에는 윤리적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근거로 ‘손해 무’(Nothing is lost)라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우트카(Outka)는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지지하기 위해 램지(Ramsey)의 이론을 기초로 ‘손해 무’라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는 어차피 영구적으로 냉동 보관되거나 파괴될 잔여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손해 볼 것 없다는 견해이다. 램지는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살인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1) 무고한 생명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경우, 그리고 (2) 무고한 다른 생명이 구해질 때는 직접적인 살해가 허용될 수 있다”⁶²⁾ 우트카는 램지의 이론을 배아에 적용하여

61) 박재현, 신민선, 위의 글, 15면.

62) Paul Ramsey,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How Shall Modern War Conducted Justly?*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61), 171-91. Outka, 위의 글, 46면에서 재인용.

줄기세포의 연구를 위해 잔여배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리고 (2) 손해는 적어지고, 적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⁶³⁾

우트카의 첫 번째 논지는 살 가망이 전혀 없는 잔여배아의 생명을 이용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착상되지 않는 잔여배아는 결국 영원히 냉동되거나 파기 처분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므로, 잔여배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지는 렘지의 “두 번째 예외 조항을 부분적으로[필자 강조] 확대하여 무고한 다른 생명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다.”⁶⁴⁾ 여기서 ‘부분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직접적인 살해’의 범위를 한정하지는 것이다. 즉 모든 배아의 사용과 살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트카는 “수정율의 확보를 위해 수정된 배아이지만, 영원히 착상되지 않을 배아”만의 사용을 허락한다. 의도적인 살생을 전제로 계획적으로 생산된 배아는 이 부분적 확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순전히 연구를 위해 생산된 배아”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아기를 얻게 될 부모 당사자 외에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⁵⁾

잔여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파괴할 경우, 다른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잔여배아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줄기세포의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어차피 죽게 될 잔여배아를 연구에 사용해도 더 이상의 생명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잔여배아를 사용하여 다른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

63) Outka, 위의 글, 46.

64) 앞의 글, 47.

65) 같은 글.

잔여배아의 사용은 허용 가능하다는 윤리적 대안은 ‘선행장려’라는 관점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수정될 때부터 배아가 인간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배아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이를 받아들여 기독교의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을 배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가치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눈앞에 존재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한 인간, 즉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지며 사회의 한 구성원을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가시적으로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적 인간관계도 유지하지 못하지만, 가장 약하고 가장 피해입기 쉬운 존재인 배아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다른 말로, 이웃을 치유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약자보호의 사랑인가? 배아가 인간임을 인정한다면 어느 사랑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한 생명을 파괴하여 다른 생명을 연장하거나 다른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잔여배아의 경우는 윤리적으로 고려할 관점이 달라진다. 줄기세포의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아를 생산하고 복제하는 것과 이미 생산된 잔여배아를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수정설을 수용하더라도, 잔여배아의 사용을 지지할 기독교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잔여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괴 처리한다면, 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이득이 없으므로 산술적으로 -1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잔여배아를 사용하여 한 생명을 구하면 다시 +1의 결과를 준다. 이는 한 생명을 잃는 손해를 상쇄하며 다른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잔여배아를 사용하여 고통당하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는 시도는 장려할 만하다. 워터즈(Waters)는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곤경에 처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고통당하는 이웃과 단순히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을 사용하도록 기독교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잔여

배아를 사용하여 줄기세포 연구를 할 것을 주장한다.⁶⁶⁾

배아가 인간임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선행우선’의 입장을 지지한다. 즉 잠재적인 인간인 배아의 생명보다는 현존하는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아의 지위가 확실치 않다면, 인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배아를 이용하여 “연구를 할 중요한 도덕적 사유가 있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주장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중요성’이라는 사유는 초기 배아가 사람이라는 ‘단순한 가능성’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이들은 배아의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배아가 하나의 고유한 생명이며 인간임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생명우선’의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한 생명인 배아를 죽여서 기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배격한다. 어떤 고귀한 목적이라도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존재론적인 논쟁을 통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우선적으로 배아의 생명을 보전하는 안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는 거부된다. 선행우선의 입장이 ‘치유하는 사랑’을 강조한다면, 생명우선의 입장은 ‘약자보호의 사랑’을 강조한다.

‘선행우선’이나 ‘생명우선’의 입장과 비교할 때,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선행장려’의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선행장려’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관련 연구를 선행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선행우선’의 입장과 비슷하나, 배아의 생명과 인권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은 ‘선행우선’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

66) 앞의 글, 75.

67) Song, op. cit., p.100.

는 입장을 거부하고 배아의 부분적 사용, 즉 잔여배아의 사용만을 허용한다. ‘선행장려’의 입장이 배아의 인간적 지위를 존중하는 것은 ‘생명우선’의 입장과 그 의견을 같이하나,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지는 아니하는 점은 ‘생명우선’의 입장과는 다르다.

‘선행장려’는 두 극단적인 입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절충안이다. 이는 시험관 아기 시술과 관련된 윤리적 판단을 보류하므로 생명우선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준수하지는 않지만, 배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잔여배아라는 어차피 죽을 생명의 이용만을 허용하므로 더 이상의 생명의 손실은 없다. 반면에 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인류에게 필요한 선한 행위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부분적인 배아의 사용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며 연구를 장려한다. 다른 말로 한 생명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죽게 될 생명이라면 그 희생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배아를 위한 ‘약자보호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인류를 위해 ‘치유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이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사상, 즉 ‘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사랑’의 원리를 배아와 현존 인간 양측에 최대한으로 적용하는 기독교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이다.

V. 나가는 말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과학적 정보의 증가는 배아의 인간적 지위에 대한 논쟁과 혼란을 야기하며 오히려 생명과 인간을 정의하는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과학이 전통적 신학에 충격을 주며 종교와의 갈등을 빚어낸 역사는 지금도 첨단생명과학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 신학이 과학과 단절된 교리적 독단이 되지 않기 위해 생명과 관련된 전통적

교리의 검토가 필요한 때이며, 동시에 인본주의적 오류를 방지하고 과학 절대주의적인 허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신학적 재정립이 시급한 때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필자는 인간의 시작점을 과학적, 신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재로서는 존재론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정란을 인간으로 보는 측은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절대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는 측은 연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필자는 배아의 생명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줄기세포 연구에 배아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윤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잔여배아를 사용하는 연구는 엄격한 규제 하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지지하는 근거로는 ‘손해 무’와 ‘선행 장려’라는 이론이 제시된다.

이러한 대안은 ‘미끄러운 경사길’의 문제를 내포하는 약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행하며 동시에 법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아를 과잉 생산하거나 실험용으로 배아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과학은 인간의 제한된 지식에 의해 발전되므로 현재 검증된 과학이라고 해도 잠정적인 진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과학이 더 발달한 장래에는 논란이 많은 배아를 사용할 필요 없이 획기적인 다른 방법으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고통과 질병의 감소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문화명령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병과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수용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죽음은 출생과 삶과 똑같은 인간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⁶⁸⁾ 인류의 건강 증진과 생명 연장을 이루려는 과학적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직시하며 현재의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참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창조력을 겸손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생명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좋은 세상을 건설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글서적>

- 강희원. 「생명 대(對) 공학 대(對) 법의 풀리지 않는 3차방정식으로서 “대화적 생명 공학법”」.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김근진, 신준호.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 김성봉. 「개인 영혼의 기원에 대하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영혼문제와 인간복제』.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7.
- 김영선.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에 대한 조직신학적 고찰」. 한국개혁신학회.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_____. “인간복제와 영혼”.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506호(2001년 2월).
- 김은혜. 「한기체 교수의 ‘인간복제, 축복이나 재앙이냐’에 대한 논찬」. 한국기독교 윤리학회. 『생명, 신학, 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3.
- 박재현, 신민선.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 윤리』 제10집(2005).
-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 서울: 가치창조, 2001.
- 오덕호. 「생명복제에 대한 성서적 고찰」.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

68) 몰트만, 위의 글, 222.

- 과 인류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유승원. 「오덕호 교수의 “생명복제에 대한 성서적 고찰”.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이경직. 「기독교 생명윤리학 방법론」. 한국기독교교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0집(2005).
- 이승구.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이종원. 「배아복제의 찬반논변에 관한 윤리학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9집(2005).
- 이진우 외 3명. 『인간 복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독일 슬로터다이크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장도곤.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와 윤리적 대안」.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38권(2005).
- _____. 「복제고양이 Cc 탄생의 신학적 의미: 인간의 영혼육의 재조명」,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7집(2004).
- 장석정. 「강성열 교수의 “구약성서의 생명공학: 다시 읽는 창조 이야기”에 대한 논찬」.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진교훈. 「생명과학에 대한 윤리적 성찰」. 호남신학대학교 해석학연구소 『생명과학과 인류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2001.

<번역서적>

- Barbour, Ian G. *When Science Meets Religion*. 이철우.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서울: 김영사, 2001.
- LECOURT, Dominique. *Humain, Post Humain*. 권순만. 『인간복제논쟁: 인간 복제 이후의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서울: 지식의 풍경, 2005.
- McGrath, Alister.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서울: 知와 사랑, 2001.
- Moltmann, Jürgen. *Wissenschaft und Weisheit: Zum Gespräch zwischen Naturwissenschaft und Theologie*. 김균진.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ence, Gregory, E. ed. *Flesh of My Flesh: The Ethics of Cloning Humans*. 류지한 외.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울력, 2002.

<영문서적>

Cole-Turner, Ronald. *Beyond Cloning: Religion and the Remaking of Humanity*.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Outka, Gene. "The Ethics of Human Stem Cell Research." in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s.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eterson, James C. "Is a Human Embryo a Human Being?" in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s.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Ramsey, Paul.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How Shall Modern War Conducted Justly?*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61.

Singers, Peter. *Practical Ethic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Song, Robert. "To Be Willing to Kill What for All One Knows Is a Person Is to be Willing to Kill a Person." in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eds. by Brent Waters and Ronald Cole-Turner.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Waters, Brent and Ronald Cole-Turner eds. *God and the Embryo: Religious Voices on Stem Cells and Cloning*. Washing,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신문>

‘최초의 시험관 아기 엄마 된다’. 조선일보. 2006년 7월 12일자.